

# 美출판가, 인기작가에 과잉 투자

## 작품 계약에 3천만달러까지... '투기'라는 自省論도



미국 문단에는 작품 하나로 돈방석에 올라앉은 작가들이 적지 않다. 레인 허드, 스티븐 킹, 에이미 탄, 톰 울프 등은 최근 출판사들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최근 미국의 출판가에서는 인기작가들에게 파격적인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근작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과열현상이 위험수위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 우려와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출판사들이 이른바 인기작가들에게 지불하는 계약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4년전 모로 출판사와 에이본출판사가 「쇼군」의 작가 제임스 클라벨에게 신작 「돌풍」(Whirlwind)의 하드커버 및 페이퍼백 출판계약금으로 5백만 달러(한화 약 33억5천만원)를 지불했는가 하면, 2년전 사이몬 앤드 슈스터사는 「父」의 작가 마리오 푸조와 재계약하면서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은 작품에 4백만달러를 지불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워너북스사는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후편을 여류작가 알렉산드라 리플리에게 맡기면서 계약금으로 49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원작자인 미첼이 1936년도에 이책을 펴내면서 출판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5백달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뭉기뭉기해도 이 방법의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은 공포추리작가인 스티븐 킹이다. 스티븐 킹은 「샤이닝」(Shining) 「미저리」(Misery) 등 공포와 섹스를 교묘하게 배합한 작품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는 미국의 최고인기작가로, 출판가에서는 베스트셀러 제조기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바이킹 펄컨 및 뉴 아메리칸 라이브러리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출판가에서는 그가 차후 발표하게 될 4개 작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최소한 3천만 달러(약 201억원)에서 4천만 달러(약 268억원)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판사들이 작가들에게 파격적인 액수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현상은 비단 인기작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무명작가나 전문연구자들의 출판계약금도 십만 단위를 넘어서는 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문을 갓나온 신인작가들이 데뷔작 한편으로 돈방석에 올라앉은 일쫓은 예사로운 실정이다.

그 예로, 지난 3월 레인 허드라는 벽돌제조업자는 자신의 월남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처녀소설 「CW2」를 출간하면서, 에이본 북스社로부터 30만 달러(약 2억원)를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런가하면 중국계 여류작가인 에이미 탄 역시 처녀작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의 계약금으로 5만달러를 받는 한편, 빈티지社와 페이퍼백 출판계약을 맺으며 12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해 「강대국의 흥망」을 발표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한 예일대 교수 폴 케네디 역시, 랜덤 하우스와의 재계약에서 6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출판가의 원고입찰경쟁이 이처럼 도박판을 방불케 하는 투기 조짐마저 보이게 된 원인으로는 몇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우선 그 첫째 원인은, 최근 몇년 사이에 대출판사들 간의 합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86년 더블 데이社가 서독의 베텔스만社에게 넘어간 것을 필두로 하여, 미국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맥밀런社가 지난해 영국의 출판재벌 로버트 맥스웰에게 넘어가기까지, 지난해 3년 동안 미국 출판계에서는 최소한 16건의 주요 합병이 이루어졌다. 현재 이들 몇몇 메이저출판사들이 거둬들이는 총수입은 전체 출판시장의 60%가 넘는다. 따라서 이제 출판업계에서 비슷비슷한 규모의 출판사들이 동료관계를 유지하는 과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으며, 체제면에서나 업무 스타일면에서나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베스트셀러작가는 영화계의 스타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영화에 스타를 출현시키고 싶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사이먼 앤드 슈스터社의 편집주간 마이클 코다는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메이저출판사들의 원고입찰경쟁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건실한 출판사들이 설 땅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파라 스트라우스 지루社는, 87~88년도 최대 히트작 중 하나였던 장편 소설 「허영의 모닥불」(Bonfire of Vanity)의 작가 톰 울프와 재계약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했다. 당시 출판가에서는 메이저출판사들이 이 작가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달러를 제시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파라 스트라우스 지루社의 연간 총수익은 약 3천만 달러. 아무리 베스트셀러작가라지만 한해 수익의 절반을 한 작가에게 투자하는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출판사는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급기야 페이퍼백 출판사인 밴텀社와 손을 잡고 총 5백만~7백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편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지난 십여년 동안 도서관매시장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는 점도, 출판사들의 과감한 투자를 가능케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뉴욕시 「도서산업연구그룹」(Book Industry Study Group)의 최근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드커버도서 부문의 총 판매액은 약 2억8천6백만 달러(약 1천9백16억 2천만원). 이는 1983년도에 비해 33%가 늘어난 숫자다. 그런가하면 출판사들의 순수익도 두배 정도 늘었다고.

몇몇 인기작가들의 작품출판 계약금이 엄청나게 된 데에는, 극성스런 에이전시들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에이전시들은 고객인 작가를 위해 출판사로부터 가능한 한 높은 액수의 계약금을 받아내는 일을 주업무로 한다. 따라서 에이전시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 높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력있는 에이전시에는 자연 유명작가들이 몰리게 마련이다. 일례로 시드니 셸던, 제키 콜린스 등과 같은 스타급 작가들을 고객으로 거느린 에이전시 모튼 켈클로가 미국 출판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과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작품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작가를 만나보고 싶다면 협상용의가 있다고 말을 꺼내기만 하면 에이전트들은 참을성없이 다른 출판사로 달려가게 마련이다.” 랜덤 하우스社의 발행인 조니 에반스의 말처럼, 출판인들 중에는 에이

전시들이 최근의 ‘입찰광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이다.

따라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인해 초래되는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모두의 자제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 출판인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다.

## 아일랜드 시인 히니, 英시단 최고 명예직 차지

아일랜드의 시인 시머스 히니(50)가 최근 영국 시단의 최고 명예직 중 하나인 옥스퍼드대학 영문학과 詩교수로 임명돼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5년마다 옥스퍼드 졸업생 8만명이 모여 투표로 선출하는 이 詩교수직은 281년이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동안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차례로 이 자리를 거쳐갔다. 선거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전임자인 피터 레비의 추천에 힘입은 히니가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어 가볍게 당선됐다고. 詩교수는 일년에 세 차례만 강의를 하며, 1년 봉급도 4900달러밖



영국시단 최고의 명예직인 옥스퍼드大學 詩교수로 임명된 아일랜드의 시인 시머스 히니.

에 안돼 명예교수의 성격이 강하다.

시머스 히니는 ‘에이즈 이래 가장 위대한 서정시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가로, 아일랜드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시세계는 평론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독자들은 계관시인 테드 휴즈보다도 아일랜드 시인인 히니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히니는 북아일랜드 가톨릭 집안의 9형제 중 한명으로 태어났으며, 1972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수도 더블린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과 영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짙은 암영을 드리우고 있으나, 히니는 자신이 정치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詩라는 신성한 이름을 머리 뒤의 후광처럼 둘러메고 다니다보면 자신이 실재는 미덕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고민하게 된다. 나는 항상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 「뉴스위크」 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상소감을 겸해 털어놓는 히니의 심경이다.

## 佛혁명가들의 연설문집 출간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활동했던 혁명가들의 사상을, 그들이

행했던 불같은 연설문들을 통해 살핀 흥미로운 책이 최근 파리에서 출간됐다.

갈리마르출판사의 「플레이야드총서」 중 한권으로 출간된 「프랑스혁명의 웅변가들」(Les Orateurs de la Révolution, 프랑스와 튀레, 란알레비 엮음)은 혁명가들의 연설문을 통해 그들의 사상적 성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웅변가들은 1789년 당시 출현한 제헌의회에 소속돼 있던 의원들이다. 대표적 인물들로는 혁명 당시 31세였던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해 28세였던 바르나브, 30세였던 뒤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계에 나선 지 얼마되지 않은 정치초보자들이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치를 창조해냈던 사람들이다.

「프랑스혁명의 웅변가들」에서 특히 재미있는 점은, 젊은 혁명가들의 급진적인 성격을 그들의 독서형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튀레와 알레비 두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제헌의회 의원들의 독서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즉 식민지문제와 동맹권금지에 대한 사회·경제서적류와 문화교양서적류로 구별되는데, 편자들은 젊은 혁명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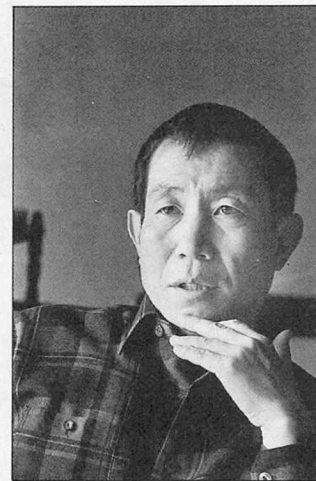
이 理想의 발판을 얻은 쪽은 바로 문화교양서적 독서를 통해서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각각의 성격에 따라 독서취향도 차이를 보여,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의 사상적 후예였으며 탈레랑은 볼테르파, 무니에와 베르가스같은 이들은 몽테스키외파였다고.

한편 「르몽드」지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통해, 혁명기에 가장 대담했던 인물들의 연설문을 통해 그 문학적 측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호평했다.

## 작가 안정효씨 美문단에서 좋은 반응 얻어

소설가이자 번역문학가인 안정효씨(48)가 지난 5월 美소호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펴낸 「전쟁과 도시」(영문제목 *White Badge*)가, 미국 문단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본지 제38호 4월5일자 기사참조)

「전쟁과 도시」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주인공 한기주를 통해 전쟁의 의미와 인간성의 문제를 파헤친 장편소설. 작가



안정효씨

인 안정효씨의 월남전 중군시절과 어린날의 6·25 경향이 길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미국언론들도 「전쟁과 도시」를 安씨의 자전적 소설로 소개했다.

「뉴욕타임스」(6월3일자)는 작가와 「전쟁과 도시」를 소개하며 ‘힘과 독창성을 갖춘 작품’이라고 평했으며, 특히 미국문화가 다른 문화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고 지적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평전문지 「뉴욕타임스 북리뷰」(7월2일자) 역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실고, “월남전 소설로서 진부한 면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끝마무리는 뛰어나다”고 평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6월29일자)는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눈길을 모았는데, “한국문학을 미국에 본격 소개했다는 점에서 「전쟁과 도시」의 출간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정효씨는 이 인터뷰에서, 「전쟁과 도시」가 월남전 참전의 정치적 의미를 철저히 파헤치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은 다만 ‘전쟁터에서의 휴먼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따름이라고 털어냈다.

안정효씨는 내년 1월경, 역시 소호출판사를 통해 「갈쌈」(영문제목 *Silver Stallion*)을 미국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오애리 기자

## 「뉴욕타임스 북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89년 7월 2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RUSSIA HOUSE 존 르 카레(크롭프) 글라스노스트가 철의 장막을 녹슬게함에 따라 첩보전의 양상도 바뀐다	SUMMER OF '49 데이비드 헬버스탐(모로) 48년 아메리칸 리그에 진출한 보스턴 레드 삭스팀과 뉴욕 양키스팀	GATES OF PARADISE V. C. 앤드류스(포켓) 교여성성이 행방불명된 이북남동생을 찾는다	TALKING STRAIGHT 리 아이아코카, 소니 클라인필드(벤턴) 클라이슬러 회장 아이아코카의 경험과 주장들
2	TALKING GOD 토니 힐러먼(허퍼 & 로) 두명의 뉴 멕시코주 경찰관들이 인디언 가면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정체를 벗긴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펄(빌라드) 수필집	TILL WE MEET AGAIN 주디스 크란츠(벤턴) 1차세계대전 직전의 파리에서부터 시작된 한 여성과 그녀의 두 딸이 겪는 모험	BITTER BLOOD 제리 블랫츠(오닉스) 부유한 세가문에서 발생한 9명의 살해사건의 원인을 파헤친 작품
3	THE NEGOTIATOR 프레데릭 포사이드(벤턴) 핵무기 폐지조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시도를 한 미국인이 막는다	A WOMAN NAMED JACKIE C. 데이비드 헤이먼(라일 스투어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전기	ALASKA 제임스 미치너(포셋) 픽션으로 엮은 알래스카 역사	THE MORMON MURDER 스티븐 나이퍼,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오닉스/NAL) 1985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생한 세차례의 폭발 살인사건
4	RED PHOENIX 래리 본드(워너) 제 2차 한국전쟁에 참전한 세명의 미군들과 그들의 역할	LOVE AND MARRIAGE 빌 코스비(더블데이) 로맨틱한 관계의 기쁨과 좌절에 대한 고찰	TIMOTHY'S GAME 로렌스 샌더스(버클리) 주식거래인이 월가의 신용사기사건을 쫓는다	A WORLD OF IDEAS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42명의 작가 및 지식인들과 현대문명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눈 대담집
5	WHILE MY PRETTY ONE SLEEPS 메리 히긴스 클라크(사이먼 & 셔스터) 가십작가의 살인사건이 뉴욕 하이패션계에 파란을 몰고 온다.	IT'S ALWAYS SOMETHING 질다 레이드너(사이먼 & 셔스터) 자궁암으로 사망한 여성코미디언이 남긴 투병기	THE SILENCE OF THE LAMBS 토마스 헤리스(세인트 마틴스)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FBI요원과 여성	LOVE, MEDICINE & MIRACLES 버니 시겔(페레니얼/허퍼 & 로)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
6	CAPITAL CRIMES 로렌스 샌더스(포트남)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나이와 워싱턴 정치·사교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THE GOOD TIMES 라셀 베이커(모로) 뉴욕타임지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고향 볼티모어에서 뉴스보이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해서 50,60년대 백악관출입기자로 활동하기까지의 자신의 언론생활을 회상했다	THE DARK TOWER : The Gunslinger 스티븐 킹(시네트/NAL) 악당의 뒤를 쫓는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 시리즈 첫권	THE ROADLESS TRAVELED M.S. 펙(터치스톤/S & 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7	THE TEMPLE OF MY FAMILIAR 앨리스 워커(하코트 브래이스 조바노비치) 5천여년에 걸친 인류의 다양한 관계들을 파헤친 장편소설	PAPA, MY FATHER 레오 버스카글리아(슬랙) 인간의 사랑이 지닌 원동력을 찬양해온 저자가 아버지와 생활을 회상한다	BATMAN 크레이그 쇼 가드너(워너) 배트맨이 고담시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를 잡는다	RIDING THE IRON HORSE 폴 더루(아이비) 중국대륙 횡단기차여행기
8	THE JOY LUCK CLUB 에이미 탄(포트남) 이민 1세대인 어머니와 2세대인 미국화된 딸 사이의 긴장과 문화적 유대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벤턴)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STAR TREK V : The Final Frontier J. M. 딜러드(포켓) 캡틴 커크와 엔터프라이즈 승무원들의 모험	FATHERHOOD 빌 코스비(버클리) TV스타이자 다섯 자녀 아버지인 코스비가 털어놓는 일화들
9	THE SATANIC VERSES 셸먼 러쉬디(바이킹) 런던에 거주하는 봄베이 출신의 두 남자가 그들 자신 속에 내재한 선과 악을 발견하게 된다.	THE NIGHT THE BEAR ATE GOOMBAW 패트릭 F. 맥마너스(홀트) 26편의 반 자서전적 이야기들	THE SHELL SEEKERS 로자몬드 펄처(델) 영국의 한 가문의 삼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	SENATORIAL PRIVILEGE 레오 다모어(델) 1969년 차파퀴티사건에 대한 보고서
10	DAY OF THE CHEETAH 데일 브라운(파인) 미국의 첩단무기가 KGB스파이인 비행기 조종사의 손에 들어간다	THE ANDY WARHOL DIARIES 패트 헤케트(워너) 1976년부터 87년까지 예술계를 이끌었던 앤디 워홀의 일기집	DEFY NOT THE HEART 조애너 린제이(에이본) 12세기 영국에서 한 여성이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THE POWER OF MYTH 조세프 캠벨,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인간과 삶과 신화의 관계